

무주군민 양질 의료혜택 현실화

안전한 버스 운행 위한 대안 모색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 군민 6명 무료 건강검진... 군민 건강증진 기여 기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 무주군이 양질의 의료혜택이 현실화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2일 무주군민 6명이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협약에 따라 무료 건강검진을 마쳤다. 이들은 기저질환이 있고 증상을 호소해 관내에서 치료나 검사가 어렵고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추가 진료(검진)가 필요한 주민들이다. 이날 주민들은 엑스레이, 내시경, MRI, 초음파, 심전도 등을 차례로 받았다.



22일 무주군민 6명이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협약에 따라 무료 건강검진을 마쳤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의료진은 23일 오후 무주군 실천면에 위치한 나뭇리조트에서 의료취약계층 검진 사업 실적 및 의료 사회 공헌사업 추진 간담회를 갖는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박경우 원장을 비롯해 임정운 부원장, 김영수 교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의료취약

계층 건강검진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웠던 의료취약지 무료 순회 진료 추진 가능여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화 지원 사례를 통한 적용 검토,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원격 건강상담(진료)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박경우 원장은 "우리병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무주군민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만큼 사업을 본격화해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의 경우 동부산악 농촌지역으로 병원 수준의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며 무주읍에 민간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다"며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협약체결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력이 돼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로부터 유소견자 정밀검사 및 의료지원(필요시 서울대학교병원 약 조제 처방), 건강강화 진행(경로당·건강증진·치매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보건 교육) 등의 의료지원 혜택이 가능해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무진장여객 버스 직접 탑승해 운행 점검

현장의정을 강화하고 있는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이번에는 무진장여객 버스에 직접 탑승해 운행실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무주군을 다니는 무진장여객 버스에 비공개로 탑승해 주민들이 편리한 형태로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의원들은 기사의 친절함과 버스내부 청결상태, 급기속과 급정지 등 안전운행 여부,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 비치, 손소독제 비치와 마스크 의무착용 등 코로나19 대응조치를 평가했다.

의원들의 이번 무진장여객 버스 탑승은 막대한 지원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노선버스가 주민편의를 높이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앞서 무주군의회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을 비롯해 교통담당 직원, 무진장여객 사업자는 물론 기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왔다. 차량 크기, 친절도, 배차간격 등



버스운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이 직접 버스에 탑승하며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무주군의회는 버스탑승을 마친 후 회의를 열어 의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장남과 통학 및 출퇴근시간, 주말 등 다양한 유형의 버스 운행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탑승하고 버스 운행의 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무주군의회는 향후 무진장여객 버스 운행이 주민편의를 더욱 충족하기 위해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 모든 방법을 놓고 탑승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김관영 지사에 현안사업 지원 건의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 협조 요청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2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군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지역권 친

환경 산림고원 조성 △악취저감사업 지원비율 차등 지원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등 4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나후원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상생을 위해 장수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역인 '금남호남정맥 신평재'를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에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금강산류지역의 주된 수질 오염원 제거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저감 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높이고, 인구감소와 상관업체 극복을 위한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군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금강산류 수변구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는 장수군의 필수과제"라며, "과제 해결을 위해 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2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군 행정력을 집중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이명진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투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제2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격적인 활동에 임할 예정이며, 군청과 소속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명진 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목적과 군민이 행복한 군정방향 제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라 부위원장은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장수군이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회복지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22일 개최했다.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 주관으로 열린 이번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행사를 생략하고 유공자 표창,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사회복지분야 유공 표창은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8명에게 장수군수, 장수군의회의장,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사회



복지협의회장 등 훈격별로 수여됐다.

최훈식 군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창열 진안부군수, 시설물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김창열 진안부군수는 22일 관내 시설물을 방문해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추진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점검대상 시설은 중앙부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26개소와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한 76개소 등 노후·위험시설 등을 포함해 총 102개소이다.

22일에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남광진 술이파트와 진안탕을 둘러보며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여부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점검에 영상 촬영 드론을 활용해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운 취약 지점까지 자세하게 확인이 이뤄져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창열 부군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대상시설물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상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지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진안군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이 우려하게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 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생후 6개월~만13세 어린이 중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2회 접종 대상자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하므로 이른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1회 예방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진안군의료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14~64세의 유·무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예방접종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위탁의료기관(8개소)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보건(지)소에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